

# 빈곤문화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

이진숙

(대구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빈곤문화, 긴급구호시설, 빈민, 심리적 재활, 노숙자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전통적 빈곤계층 외에 새로이 빈곤문제에 노출된 인구가 급증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의 전통적 이슈 중 하나인 빈곤문제가 새로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되었다(김미곤, 1999: 64; 박윤영, 2001: 386; 허선, 2001). 당시에 빈곤이 심화된 이유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의 부재, 그 중에서도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거나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저임금근로자들이 기초생활마저 위협받는 생존의

\* 본 연구는 2004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040428)에 의해 지원되었음.

위험 속에 방치된 데에 기인된 것이었다(류정순, 2001; 구인회, 2002; 홍경준, 2002).

정부는 위와 같은 새로운 빈곤양상에 대해 주목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대응방안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의 결함과 낮은 수준의 제반 사회복지인프라 구조는 빈곤의 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최저생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이 2002년(3.5%)의 경우에 여전히 1997년(2.8%)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0%이하에 해당되는 상대적 빈곤층도 2002년(8.0%)의 경우에 1997년(6.6%)의 수준보다 높은 모순이 배태되고 있다(석재은·김태완,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렇듯이 빈곤문제가 공적인 대책을 통해서 제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과 연구자들 간에는 일부 빈민층에게서 빈곤상태에 안주한 채(poverty trap) 가족해체와 알코올중독 그리고 가정폭력 등 다양한 병리현상을 포함하는 빈곤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박윤영, 1996, 1998; 김성천, 1997).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가 현행의 기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초보적 수준에서 탈피하여 빈민들의 심리적 자립과 자활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문화의 존재에 대한 실태는 공식적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료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접근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적 측면에서나 학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우리 사회 내 빈곤계층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보건복지부, 2003a)에게 있어서의 빈곤문화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sup>1)</sup>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빈곤문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둘째, 이와 관련된 현행 심리적 재활서비스의 제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셋째, 이 결과를 토대로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노숙자와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은 근본적으로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계층이지만(제 2장 2)절 참고) 이에 대한 연구는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대책이 개발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 2. 빈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빈곤문화의 형성조건과 특성

빈곤은 사회복지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주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전통적 이슈이다. 빈곤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사회제도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론들<sup>2)</sup>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빈곤계층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그 원인을 찾는 빈곤문화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적 측면에서 빈곤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Lewis, 1959)에 초점을 두고 빈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sup>3)</sup>

Lewis(1959, 1961, 1966, 1968)에 의하면 빈곤문화란 물질적 부족함과 연관된 박탈의 문제가 아니며, 저소득층에게 삶에 대한 적응기능을 수행하고 생활계획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공하는 빈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Riessman et al., 1965: 394; Banfield, 1970). 그로 인해 빈곤문화의 생활양식은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여 가족구조, 대인관계, 소비습관, 가치체계 및 시간개념에 있어서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일단 형성되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세대 간에 세습되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Lewis, 1959; 박윤영, 1998: 179-180).

빈곤문화는 이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첫째, 현물경제와 임금노동 그리고 이윤생산의 경제체제 하에서, 둘째, 높은 실업률과 미숙련 노동의 불완전고용 그리고 저임금상태가 유지될 때,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구가 조직되지 못했을 때, 넷째, 사회 내에서 부와 재산의 축적 및 계층간 이동의 가능성이 강조되고 동시에 빈곤의 발생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는 지배

2) 이들 이론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자가 왜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결국 빈곤은 학교교육, 기술훈련, 건강, 직업정보 등과 같은 인적 자본에의 낮은 투자에 기인하는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의 결과라고 보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이것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잠재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정보에 필요한 도구로서 교육수준과 같은 배경적 특성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근로자들은 취업기회를 두고 경쟁한다는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 그리고 노동시장은 분절이 되어 있고, 분절된 노동시장들에서의 임금결정과정은 서로 다르고, 또한 이러한 분절된 노동시장들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우 제한된 이동이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시장 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등이 대표적이다.

3) 빈곤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주의자들(Etzioni, 1976: 27-33)은 빈민들이 형성하는 빈곤문화는 빈민들로 하여금 야망이나 열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그들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갖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기능적이라고 본다. 이외는 반대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빈곤문화는 한 사회의 지배집단이 빈민들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들에 의해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최일섭·최성재, 2001: 85-89).

계급의 가치가 통용되는 조건하에서 형성된다고 이해되었다(Will et al., 1970: 130). 그러나 후에 이에 더하여 첫째,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인종집단과 문화들이 존재할 때, 둘째, 빈곤을 제거하려는 사회정책과 계획에 의해, 셋째,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변화들에 의해 빈곤문화가 성장될 수도 있음이 주장되었다(Glaser, 1970; Will et al., 1970: 130).

<표 1> 빈곤문화의 특성

빈곤문화의 특성	구체적 내용
개인적 특성	높은 알코올중독 경향
	좌절감과 운명주의
	강한 현재지향성과 미래에 대한 설계능력 부재
	주변성, 냉담, 무기력, 의존, 외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무소속, 소외감
	허약한 자아구조, 무력감, 열등감, 개인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
	권위주의적 경향
	타인에 대한 불신감
가족적 특성	아동의 혼육방법으로 빈번한 물리적 폭력 사용
	아내폭행
	성에 관한 조속함과 조기 성관계
	자유로운 결합, 합의결혼
	상대적으로 높은 부인 및 아동유기 경향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 또는 모계중심의 가족경향
교육적 특성	낮은 수준의 교육과 학식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낮은 성취욕구
	학교에서의 비행
경제적·직업적 특성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만성실업과 불완전 고용
	저임금
	비숙련 직업과 저기술 업종
	아동과 미성년자 노동
	만성적인 현금부족
	비축식량의 부족
	개인재산의 저당과 고리사채의 이용
	옷과 가구의 중고품 활용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빈곤문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의 가족적 배경, 능력, 교육, 노동(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1: 105-121; 김태성·손병돈, 2002)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빈곤문화의 특성을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경제적·직업적 특성(Lewis, 1959; Miller, 1968: 53; Ferman et al., 1969: 409-410; Will et al., 1970: 133-134; Leeds, 1971; Winter, 1971: 18)으로

구분하여 보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4)</sup>

이상과 같이 빈곤문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이론적 기저에는 낙인주의(stigmatism)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념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고(Valentine, 1968; Rossi and Blum, 1968; Waxman, 1977),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사회에서의 빈곤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Valentine, 1968; Banfield, 1970; Waxman, 1983; Duncan and Tickamyer, 1988).<sup>5)</sup>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빈곤의 발생과 지속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빈곤문화는 개인의 사적인 특성들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이면서 다시 빈곤을 유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문화가 빈곤의 원인인가 또는 결과인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점차 빈곤문화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박윤영, 1998: 196)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모색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 2)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와 빈곤문화

오늘날 빈곤집단은 근로능력이 부재한 전통적 빈곤집단 외에,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 집단 등에 의해 구성된다면 이러한 양 집단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노숙자,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은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으로서 빈곤문제의 가장 핵심부에 위치한 대표적 집단이다. 노숙자와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 집단은 빈곤하고, 무의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안정된 주거기반이 없다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생활방식 간에는 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유사계층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집단을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으로 정하여 경제적 자립과 기초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재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보건복지부a, 2003: 209-218). 물론 정부의 정책이 1999년 이후부터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자활'의 차원으로 발전되면서(정정구, 2001) 현재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센터 그리고 부랑인시설을 통해 서비스대상자들에게 무료급식과 숙소 그리고 진료지원이 제공되며, 이들의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으로서 약물 및 알콜중독 예방, 분노조절, 금전관리, 공동체 훈련, 정신교육 등 제반 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자활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03a: 210)

4) 후에 Lewis(1968)는 그의 빈곤문화론을 수정하여 빈곤문화의 특성에 자발성, 이웃간의 상부상조, 솔직함, 손님에 대한 친절함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빈민의 생활양식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대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빈곤문화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빈곤문화에 접근해 보았다.

5) 왜냐하면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김영순, 1996; 초스도프스키, 1998)가 진행되면서 빈곤의 발생은 개인의 내적 측면 외에 개별 국가단위의 사회정책과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그리고 세계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류경순·손병돈·허선, 2000: 33-36).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의 시행이 제한적이고, 효과 또한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 (1)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세 집단 중 우선 노숙자는 거리노숙자(street homeless)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14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쉼터이용 노숙자(sheltered homeless)로 구별된다. 전자는 주거가 없어 길거리나 숙박용도가 아닌 시설과 장소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후자는 쉼터를 비롯한 노숙자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남기철, 1998, 2000; 보건복지부a, 2003: 210).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수가 1999년에 6,200명에서 2003년 말 현재 4,540명(보건복지부, 2003a: 210)으로 감소되었지만 노숙자들의 수는 그 유동성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숙자 중 거리노숙자에게는 '부랑인'과 '노숙자'로 구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노숙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자활지원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부랑인에 대해서는 단속과 단순수용보호가 서비스의 중심이 된다.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를 의미하고, 정부는 부랑인복지시설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으로는 첫째, 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랑인, 둘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랑인, 셋째,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부랑인이다(보건복지부, 2003a: 214). 2003년 현재 부랑인시설수는 38개소이며, 입소자는 모두 9,970명이다(보건복지부, 2003a: 213).

IMF 이후 노숙자가 급증되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의 관심영역으로 부상된 쪽방은 절대빈곤층인 잠재적 노숙자의 집단주거지이다. 쪽방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데 2003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2003b)의 집계로 쪽방생활자의 수는 약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쪽방생활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빈곤은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조건과 사회적 소외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쪽방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쪽방상담센터(쪽방상담소)를 통해 상담과 취업알선, 목욕과 세탁 그리고 화장실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무료급식과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a: 212).<sup>6)</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노숙자와 부랑인 그리고 쪽방생활자는 유사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sup>7)</sup>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의 공통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정무성, 1999; 유승득,

6) 쪽방실태와 생활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인옥(1999)과 서종균(1999)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2001)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했고, 지방의 경우에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구노숙자상담·지원센터(2001)에 의해 2000년에 이르러서야 기본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그 이후 신현중(2001)과 대구쪽방상담소(2001)에 의해 실태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진숙(2003)에 의해 경제적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쪽방생활자들의 빈곤문화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7) 노숙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관련집단의 유형을 구분하는 뚜렷한 차별성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엄현철(2002)의 연구는 노숙자와 부랑인이라는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0; 이문재, 2001; 황선영, 2004).

## (2)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빈곤문화적 특성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빈곤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체 노숙자 중 가족이 함께 노숙을 하고 있거나 현재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선에 불과하고, 이들 중 미혼은 전체 노숙자의 42.6%인데, 노숙자들의 90% 이상이 3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보면 노숙자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 1998). 또한 별거나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우도 35%이상이어서 가족으로 대표되는 밀접한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점이 노숙자의 큰 특성임이 드러난다(남기철, 2000: 200). 그리고 이들의 교육기간은 평균 10.53년으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경우가 14.4%, 중학교 중퇴나 졸업이 22.7%,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이 46.6%(이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은 35.1%), 대학중퇴 이상이 16.3%으로,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다. 또한 알코올 중독상태인 노숙자수는 전체의 29.3%로, 알코올 문제는 노숙자들의 정신건강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남기철, 2000: 215; 신원우, 2003; 김경순·이근매, 2004). 이상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노숙자들에게서는 빈곤문화의 특성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랑인의 빈곤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그리고 부랑인의 우울 수준과 자아개념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최성숙, 2000; 최경희, 2001)를 보면 부랑인은 심리적으로 높은 우울감 수준과 낮은 자아개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쪽방생활자들은 대체로 무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이진숙, 2003; 이진숙·김태원, 2003),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이며, 가족구성 경험은 전혀 없거나 가족해체를 경험했으며(서종균, 1999; 대구 노숙자상담·지원센터, 2001), 가족이 있어도 긴밀한 관계망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진숙, 2003; 이진숙·김태원, 2003: 158). 그리고 이들 또한 알코올중독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는 쪽방거주자에게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고취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대상자의 심리적 재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몇몇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긴급구호대상자들에게는 심리적 측면이나 가족적 배경 그리고 교육적 특성 등에서 전형적인 빈곤문화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하여 그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입방안의 연구개발도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표갑수, 1983; 김영모, 1990; 박윤영, 1996, 1998; 김성천, 1997)이 영구임대주택 거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문제(김선희, 2000; 조동환, 2001; 장준배, 2002)나 정신건강 문제(송홍지·조종희·강재현·황원숙·한혜경, 2000; 민소영, 2003a, 2003b; 신원우, 2003; 김경순·이근매, 2004)에 대해서 매우 미시적이고 분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빈곤문화의 실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위

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들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유추되고 있는 빈곤문화의 현상들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더 나아가 기존에 시도된 바가 전혀 없는 긴급구호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빈곤문화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빈곤문화론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 속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빈곤계층의 자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빈곤문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시점인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시설에는 쪽방상담센터(11개소), 부랑인시설(38개소) 그리고 노숙자쉼터(114개소)가 포함되는데, 이들 시설의 전체 서비스종사자수는 약 400여명에 달한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전국의 쪽방상담센터, 부랑인시설, 노숙자쉼터에 각 시설당 1부씩 163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가운데 회수된 103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뒤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시설종사자들의 긴급구호서비스관련 인식영역을 살펴보기 위한 5점 척도 문항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종사자의 인식영역은 크게 근무기관에 대한 인식,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의 빈곤문화 실태,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나뉘었다. 각 영역의 내용과 문항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영역		문항수	신뢰도	
시설종사자의 인식	근무기관에 대한 인식	1. 긴급구호사업과 서비스	5	.7634
		2. 긴급구호서비스의 질	9	.8621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의 빈곤문화 실태	1. 개인적 특성	11	.7931
		2. 가족적 특성	8	.7594
		3. 교육적 특성	6	.7188
		4. 경제적·직업적 특성	7	.7262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1.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9	.7409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	서비스의 시행 현황	1. 현재 시행 중인 긴급구호서비스, 2. 각 서비스의 미시행 이유		주관식
	현행 서비스의 개선사항	1.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인서비스에 대한 의견, 2.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		주관식

긴급구호시설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들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영역은 일반적인 빈곤문화의 특성별 구분을 참고하여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교육적 특성, 경제적·직업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각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3>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의 빈곤문화 실태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의 빈곤문화	구성내용
개인적 특성	근면성 정도 자립수준 현재의 알콜중독 여부 또는 알콜중독 경험 책임감 정도 가치관 성윤리의식 비행과 범죄에 대한 태도 폭력성 정도 사회에 대한 관심수준 자아존중감 수준 충동적 욕구의 정도

가족적 특성	부모와의 동거여부 원가족과의 정상적 가족생활 경험 성인기 가족형성경험 현가족의 가족해체 경험 현가족과의 접촉정도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 현가족과의 가족생활 만족정도
교육적 특성	정규교육과정의 이수여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성취욕구 학교에서의 비행경험 정규의무교육과정 이수기회 유무 청소년기의 가출경험 학업충실도
경제적·직업적 특성	청소년기의 경제활동 경험 소득활동에 대한 의지 안정적 직업생활의 경험 소비태도 일용직 종사경험 안정적 직업확보를 위한 구직노력 직업재활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현재의 구직활동정도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에 설문문의 각 문항은 하위영역별로 묶어서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 신뢰도는 .7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행 긴급구호사업과 서비스, 긴급구호서비스의 질,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교육적 특성, 경제적·직업적 특성의 7개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근무년수, 급여수준, 근무시간, 근무지역 등의 각 변인별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했다. 분석결과에서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가족적 특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유의도는  $p < .01$ ,  $p < .05$  두 가지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빈곤문화의 개선을 위한 긴급구호서비스의 시행현황과 현 서비스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주관식의 각 문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복수응답 처리를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노숙자와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이라는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구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취득과 객관성있는 응답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점 때문에 표집대상을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로 제한하고, 서비스대상자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일면적인 빈곤문화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실태만을 추출해 냈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빈곤문화의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본 주제 관련연구들이 서비스대상자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거시적 제도 중심의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정신보건적 측면에서 매우 미시적으로만 접근했다면, 본 연구는 비록 탐색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들의 빈곤문화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빈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서비스대상자들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책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연구로서 위치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특성

아래에 제시된 <표 4>와 <표 5>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남성이 66%이고 여성은 34.0%로 남성이 다수이며, 연령은 30대가 50.5%로 가장 많고, 학력은 대졸이 49.0%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6.3%로 가장 많고, 종교는 기독교가 53.4%로 가장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소지가 31.6%로 가장 많고, 각 시설에서의 근무년수는 1-5년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아 대부분 단기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은 연소득 1,000-1,500만원 미만이 55.1%로 가장 많고, 근무지역은 광역시 이상이 53.5%로 그 외지역보다 많았다. 근무시설 유형상으로는 응답자들은 부랑인시설에 29.9%, 노숙자쉼터에 59.8%, 쪽방상담센터에 10.3%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은 50시간 이상이 42.9%로 대부분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다.

<표 4>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항 목		N	%
성 별	남성	68	66.0
	여성	35	34.0
	합계	103	100.0
연 령	20대	19	18.4
	30대	52	50.5
	40대	22	21.4
	50대	10	9.7
	합계	103	100.0
학 력	전문대졸 이하	27	26.5
	대졸	50	49.0
	대학원(석/박사)수료이상	25	24.5
	합계	102	100.0
결혼상태	미혼	39	37.9
	기혼	58	56.3
	기타	6	5.8
	합계	103	100.0
종 교	무교	23	22.3
	불교	2	1.9
	천주교	21	20.4
	기독교	55	53.4
	기타	2	1.9
	합 계	103	100.0

&lt;표 5&gt; 응답자의 직업적 특성

항 목		N	%
자격증	전혀 없음	25	25.5
	사회복지사1급	31	31.6
	사회복지사2급	16	16.3
	기타	26	26.5
	합계	98	100.0
근무년수	1년미만	18	18.2
	1-5년미만	44	44.4
	5-10년미만	21	21.2
	10년이상	16	16.2
	합계	99	100.0
급여수준	1000만원미만	8	8.2
	1000-1500만원미만	54	55.1
	1500-2000만원미만	20	20.4
	2000만원이상	16	16.3
	합계	98	100.0
근무지역	광역시이상	53	53.5
	그외지역	46	46.5
	합계	99	100.0
근무시설유형	부랑인시설	29	29.9
	노숙자쉼터	58	59.8
	쪽방상담센터	10	10.3
	합계	97	100.0
주당 근무시간	45시간미만	33	33.7
	45-49시간	23	23.5
	50시간이상	42	42.9
	합계	98	100.0

## 2)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인식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만 제외하고 평균 보통정도로(개인적 특성 M=2.52, 가족적 특성 M=3.52, 교육적 특성 M=2.61, 경제적·직업적 특성 M=2.82)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는 응답결과가 보통이상(M=3.51)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1)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빈곤문화에 대한 인식

① 개인적 특성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M=2.52)에 대한 응답결과는 평균적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나 서비스대상자들이 대체로 자립성이 낮고 알코올중독 경험이 있거나 현재 중독상태이며, 부정적인 가치관과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충동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각 변인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가족적 특성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M=3.52)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보통이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서비스대상자들이 대체로 가족해체의 경험이 있으며,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본 적이 없고, 현가족과의 접촉정도와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은 낮으며, 행복한 가족생활에 대한 경험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시설종사자의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 근무시설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각각  $p<.01$ ,  $p<.05$ )를 보였다. 급여수준은 1,000-1,500만원 미만(M=3.64)인 응답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반면에, 1,000만원 미만(M=2.98)인 응답자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

변 인		M	SD	F	사후검정 (Scheffe)
근무년수	1년미만	3.42	.61	.326	
	1-5년 미만	3.55	.51		
	5-10년 미만	3.54	.48		
	10년 이상	3.55	.48		
급여수준	1,000만원 미만	2.98	.47	4.457**	A
	1,000-1,500만원미만	3.64	.51		B
	1,500-2,000만원미만	3.47	.37		AB
	2,000만원이상	3.55	.47		B
근무지역	광역시이상	3.52	.53	.000	
	그 외 지역	3.53	.49		
근무시설유형	부랑인시설	3.53	.49	3.362*	AB
	노숙자쉼터	3.35	.53		A
	쪽방상담센터	3.77	.37		B
주당근무시간	45시간미만	3.47	.45	.312	
	45-49시간	3.53	.59		
	50시간이상	3.56	.52		

\*  $p<0.05$  \*\*  $p<0.01$

주: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대한 것임(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사후검정결과에서도 1,000만원미만인 집단과 1,000-1,500만원미만, 2,000만원 이상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설유형은 쪽방상담센터(M=3.77) 근무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반면에, 노숙자쉼터(M=3.35) 근무자는 그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도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육적 특성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대상자의 교육적 특성(M=2.61)에 대한 응답결과는 평균 보통정도로 나타나, 서비스대상자들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고,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욕구는 낮으며, 학교에서의 비행경험이 있고, 청소년기에 가출을 해본 경험이 존재하고 학업 충실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교육적 특성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인식은 시설 종사자의 근무시설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p<.01)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설유형별로는 노숙자쉼터(M=2.87) 종사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교육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반면에, 쪽방상담센터(M=2.41) 종사자가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에서도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서비스 대상자의 교육적 특성에 대한 인식

변 인		M	SD	F	사후검증 (Scheffe)
근무년수	1년미만	2.76	.53	1.214	
	1-5년미만	2.52	.50		
	5-10년미만	2.70	.47		
	10년이상	2.55	.57		
급여수준	1000만원미만	2.67	.53	.356	
	1000-1500만원미만	2.56	.54		
	1500-2000만원미만	2.70	.28		
	2000만원이상	2.57	.59		
근무지역	광역시이상	2.65	.48	.698	
	그 외 지역	2.56	.56		
근무시설유형	부랑인시설	2.52	.52	5.831**	AB
	노숙자쉼터	2.87	.45		B
	쪽방상담센터	2.41	.44		A
주당근무시간	45시간미만	2.76	.43	2.047	
	45-49시간	2.55	.57		
	50시간이상	2.53	.52		

\*\* p<0.01

주: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대한 것임(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④ 경제적·직업적 특성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직업적 특성(M=2.82)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응답결과는 약간 긍정적이어서, 서비스대상자들은 미성년기부터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수행해 본 경험이 적고, 일생동안 일용직에 종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에 직업 재활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와 구직활동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직업적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시설 종사자의 근무지역과 근무시설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각각  $p < .01$ )를 보였다. 근무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M=2.95$ )의 지역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그 외 지역( $M=2.65$ )의 종사자보다 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직업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설유형별로는 노숙자쉼터 종사자( $M=3.08$ )가 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직업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반면에, 부랑인시설( $M=2.66$ ) 종사자가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도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직업적 특성에 대한 인식

변 인		M	SD	F	사후검증 (Scheffe)
근무년수	1년미만	2.88	.41	.591	
	1-5년미만	2.86	.49		
	5-10년미만	2.77	.61		
	10년이상	2.67	.72		
급여수준	1000만원미만	2.75	.46	1.129	
	1000-1500만원미만	2.88	.48		
	1500-2000만원미만	2.79	.59		
	2000만원이상	2.59	.69		
근무지역	광역시이상	2.95	.49	7.815**	
	그 외 지역	2.65	.55		
근무시설유형	부랑인시설	2.66	.59	5.840**	A
	노숙자쉼터	3.08	.44		B
	쪽방상담센터	2.90	.33		AB
주당근무시간	45시간미만	2.90	.57	.739	
	45-49시간	2.84	.46		
	50시간이상	2.74	.56		

\*\*  $p < 0.01$

주: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대한 것임(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2)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 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관계( $M=3.51$ )에 대한 응답결과는 긍정적이어서 이를 보면 시설종사자와 서비스대상자들은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의 일상에 대한 정보도 종사자가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대상자의 가족사에 대한 정보 확보나 상호간의 신뢰정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시설 종사자의 학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 ( $p<.05$ )를 보였다. 대학원수료 이상( $M=3.74$ )인 종사자가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반면에, 대졸이하(각각  $M=3.44$ )인 종사자는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도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 인		M	SD	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성	3.52	.46	.058	
	여성	3.50	.42		
연령	20대	3.32	.34	2.529	
	30대	3.62	.41		
	40대	3.41	.53		
	50대이상	3.58	.50		
학력	전문대 이하	3.44	.53	4.542*	A
	대졸	3.44	.35		A
	대학원수료이상	3.74	.47		B
결혼상태	미혼	3.45	.45	1.024	
	기혼	3.54	.46		
	기타	3.70	.27		

\*  $p<.05$

주: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대한 것임(매우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3)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

#### (1) 빈곤문화의 개선 위한 긴급구호서비스의 시행현황

빈곤문화의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긴급구호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중복응답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그리고 부랑인시설에서 빈곤문화의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인 것으로는 영농사업(7.2%), 무료진료(6.2%), 사회복지 프로그램(5.2%), 주간보호센터 운영, 신앙교육, 여가프로그램, 인성교육, 알코올치료(각각 3.1%), 직업재활, 의료재활, 목욕서비스, 무료급식,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업 프로그램,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각각 2.1%), 기타(51.2%)의 순이었다. 그리고 현재 노숙자쉼터와 쪽방상담소 그리고 부랑인시설에서 빈곤문화의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심리적 재활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49.0%), 종교프로그램(16.7%),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15.6%), 사회재활 프로그램(12.5%), 인성교육(10.4%), 미술치료(8.3%), 알코올치료 프로그램(7.3%)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긴급구호사업과 서

비스를 모두 시행하지 않고(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예산부족문제(12.4%), 전문인력 부족문제(9.3%), 정부와 사회의 지원부족문제(2.1%), 대상자 개인의 문제, 직원의 전문성문제, 시설구조문제(각각 1.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긴급구호시설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문제(8.2%), 예산부족문제(4.1%), 대상자개인의 문제(3.1%), 사회적 지지기반의 취약성문제(2.1%), 서비스의 편중문제, 대상자 선정문제(각각 1.0%)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각 시설에서 심리적 지지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문제(8.2%), 예산부족문제(5.2%), 지역사회 지지기반이 취약한 문제, 접근성문제(각각 1.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2) 현행 서비스의 개선사항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 대인서비스로는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알선(55.3%), 전문적 개별상담(54.3%),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활동(36.2%), 지역사회 자원개발(17.0%), 타 기관 의뢰서비스(6.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표 11>).

<표 11>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대인서비스

가장 중요한 대인서비스	부랑인시설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센터		합계	
	N	%	N	%	N	%	N	%
전문적 개별상담	29	54.7	16	57.1	6	46.2	51	54.3
지역사회 자원개발	11	20.8	2	7.1	3	23.1	16	17.0
타기관 의뢰서비스	4	7.5	1	3.6	1	7.7	6	6.4
교육, 직업훈련, 취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알선	27	50.9	21	75.0	4	30.8	52	55.3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활동	18	34.0	9	32.1	7	53.8	34	36.2
기타	4	7.5	4	14.3	0	0	8	8.5
합계	53	100.0	28	100.0	13	100.0	94	100.0

한편,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자아강화 프로그램(21.9%), 개별상담(18.8%), 심리치료(13.5%), 종교활동(9.4%), 대인관계기술훈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5.2%), 미술치료, 여가생활 프로그램, 내면치유 프로그램(각각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문화론의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인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의 빈곤문화 실태와 이들이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 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대체로 자립성이 낮고 알코올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가치관과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충동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이상과 같은 심리구조를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개별상담과 사례관리, 그리고 자아강화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등의 심리적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특히 개별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인력에 의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초적인 사례관리가 인테이크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이들이 가족해체의 경험이 있으며,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 본 적이 없고, 현가족과의 접촉정도와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관련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나 지지는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인 만큼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보여진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경제적 부양기능뿐 아니라 부부교육과 가족생활교육을 비롯한 유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병행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고,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욕구는 낮으며, 학교에서의 비행경험이 있고, 청소년기에 가출을 해본 경험이 존재하고 학업충실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이 빈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며,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의 강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내의 상담서비스와 방과후 교육의 강화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넷째,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은 미성년기부터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수행해본 경험이 적고 일생동안 일용직에 종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에 직업재활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와 구직활동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의 소득활동의지는 강함을 볼 때, 이들에게 지속적인 직업훈련기회가 제공되고, 자활사업차

원의 취업알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노동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결과이다.

다섯째, 노숙자쉼터와 쪽방상담센터 그리고 부랑인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중인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영농사업과 무료진료, 사회복지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운영, 신앙교육, 여가 프로그램, 인성교육, 알코올치료 등이 주를 이루고, 심리적 재활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 종교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이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의 응답결과를 볼 때 각 시설마다 서비스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들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 중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심리적 지지서비스를 긴급구호시설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문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기반의 취약성문제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인력지원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력지원 시에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일반적 대인서비스는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취업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알선, 전문적 개별상담,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활동, 지역사회자원 개발, 타 기관 의뢰서비스 등이고,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자아강화 프로그램, 개별상담, 심리치료, 종교활동, 대인관계기술 훈련, 알코올치료, 미술치료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빈곤문화적 특성에 상응하는 필연적인 응답결과라 판단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대상자들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심층적으로 시행되어야만 그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각 개별 프로그램들이 후속연구들을 통해 심도 있게 개발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참고 문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김경순·이근매. 2004. “집단미술치료가 노숙알코올중독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1: 51-79.
- 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류정순·손병돈·허선. 2000. 『IMF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출판.
- 김미근. 1999.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5: 63-83.
- 김선희. 2000.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천. 199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29-54.
-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원. 2001. “실직 노숙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상논총』 19: 87-110.
- 김인옥. 1999. “쪽방사람들의 생활”. 『도시와 빈곤』 45: 93-99.
- 김태성·손병돈.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 남기철. 1998. “노숙자문제의 현황과 시각”. 『동향과 전망』 39: 52-73.
- \_\_\_\_\_. 2000. “노숙자의 사회적 연계단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199-224.
- 노숙자다시서기기지원센터. 1998. 『실직노숙자 집중상담 1차 분석 결과』.
- 대구노숙자상담·지원센터. 2001. 『대구지역 쪽방실태조사보고서』.
- 대구쪽방상담소. 2001. 『대구지역 쪽방실태 조사보고서』.
- 류정순. 2001. “외환위기 이후 한국빈곤층의 생활실태”. 『도시와 빈곤』 48: 58-76.
- 민소영. 2003a. “Medicaid 노숙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치료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 필라델피아의 ACCESS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6: 210-237.
- \_\_\_\_\_. 2003b. “정신질환 노숙인의 쉼터입소와 사례관리 효과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1: 27-50.
- 박윤영. 1996.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사회복지정책』 3: 97-112.
- \_\_\_\_\_. 1998. “빈곤문화론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6: 177-198.
- \_\_\_\_\_.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제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이슈와 전망』,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81-407.
- 보건복지부. 2003a. 『보건복지백서』.
- \_\_\_\_\_. 2003b.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제13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안건, 2003년 7월 16일.
- 서종균. 1999. “쪽방 사람들에 대한 기록”. 『도시와 빈곤』 38: 74-102.
- 석재은·김태완. 2002.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보건복지포럼』 74.
- 송홍지·조종희·장재현·황원숙·한혜경. 2000. “서울지역 일부 노숙자들의 건강상태 및 행태”. 『가정의학회지』 21: 357-366.
- 신원우. 2003. “노숙인 음주문제의 심리사회적 예측요인”. 『사회복지연구』 21: 51-77.
- 신현중. 2001. “대구지역 쪽방실태와 그 대책”.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엄현철. 2002. “노숙인과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근. 1998. “부정주빈곤자(노숙자)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모색”. 『사회복지정책』 7: 71-89.
- 유승득. 2000. “한국 실직노숙자에 대한 공공, 민간부분 지원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1. 『빈곤론』, 서울: 나남출판사.
- 이문재. 2001. “한국 노숙자 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
- 이진숙. 2003. “도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7-226.
- 이진숙·김태원. 2003. “대구시 쪽방생활자들의 경제적 생활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25: 143-173.
- 장준배. 2002. “쪽방거주자들의 사회적 연계단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

- 원 석사 학위논문.
- 정무성. 1999. “한국 노숙자의 실체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정정구. 2001. “실직노숙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
- 조동환. 2001. “노숙자쉼터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심리상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초스도프스키, 미셸. 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 최경희. 2001. “부랑인의 우울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부랑인 복지시설 생활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숙. 2001.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일섭·최성재.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 표갑수. 1983. “한국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7. 청주대학교.
- 한국도시연구소. 2001.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신빈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좌담회”. 『보건복지포럼』 78: 4-36.
- 허선. 2001. “공공부조와 최저생활보장: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재정의 이슈와 전망』.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25-446.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황선영. 2004. “노숙인정책의 전개과정과 제도개선 방향”. 『사회복지정책』 18: 179-198.
- Banfield, E. 1970. *The Unheavenly City*. New York: Little and Brown.
- Baran, P. and P. Sweezy. 1966.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owles, S. 1972. “Schooling and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219-251.
- Blaug, M. 1972.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Earnings. What Does It Signify”. *Higher Education*: 53-76.
- Duncan and Tickamyer. 1988. “Poverty Research and Policy for Rural America”. *The American Sociologist*: 243-249.
- Etzioni, A. 1976. *Social Problems*. New Jersey: Prentice-Hall.
- Ferman, L. A. et al. 1969. *Poverty in America*.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Griliches, Z. 1979. “Sibling Models and Data in Economics: Beginnings of a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37-64.
- Harrington, M. 1962. *The 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 Leeds, A. 1971. “The Concept of the Culture of Poverty”. E. B. Leacock (eds.). *The Culture of Poverty: A Critique*: 239-241.
- Lewis, O. 1959. *Five Familie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61. *The Children of Sanchez: Autobiography of a mexican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66. “The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n* 215(4): 19-25.
- \_\_\_\_\_. 1968. “The Culture of Poverty”. D. Moynihan (eds.) *On Understanding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 Miller, H. P. 1968. *American Style*.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Inc.

- Moynihan, D. (ed.) 1968. *On Understanding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 Riessman, F. et al. 1965. *Mental Health of the Poor*. New York: The Free Press.
- Rossi, P. H. and I. P. Blum. 1968. "Social Class Research and Images of the Poor: A Bibliographic Review". D. Moynihan (eds.) *On Understanding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343-398.
- Rubington, Earl and M. S. Weinberg. 1977.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 E. 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 283-300.
- Taubmann, P. 1976. "The Determinants of Earnings: Genetics, Family and Other Environ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66: 858-870.
- Thurow, L. C.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Valentine, C. 1968. *Culture and Pov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xman, C. I. 1997. *The Stigma of Poverty*. New York: Pergamon Press.
- Will, R. E. et al. 1970. *Poverty in Afflu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Winter, J. A. 1971. *The Poor: A Culture of Poverty or a Poverty of Culture?* Grand Rapids: W. B. Erdmans Publishing Co.

## An Explorative Study on the Culture of Poverty

Lee, Jin-Sook  
(Daegu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reality of culture of poverty that employees of emergent relief facilities recognize. For this purpose, it had been carried out questionnaire with employees of emergent relief facilitie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3. It was appli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 this study.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awareness of employees to facilities in which they work is positive, 2) but their awareness to service user is negative (the degre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educational characteristic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 of service user is generally negative, while the degree of familial characteristic is generally positive), 3) the awareness to relationship with service user is posi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possibility that the culture of poverty can be expanded under the poor and psychic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Key words: culture of poverty, emergent relief facility, the poor, psychic rehabilitation, Homeless.

[접수일 2004. 8. 26. 게재확정일 2004. 10. 30.]